

208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75) 겹감이 견인 충전재 제품의 변색과 마모

□ 겹감이 견인 충전재 제품의 변색과 마모

해설)

- 다운재킷을 물세탁, 텀블건조 후, 양 소맷부리와 왼쪽 어깨부분이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. 취급표시의 글자는 완전하게 손상되어 있었음. 다운재킷은 충전재인 다운에 다량의 유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세탁을 추천하고 있음.



- 외관을 관찰하면 손상발생 부위가 양 소맷부리 주변, 옷깃 주위, 왼쪽 어깨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, 파손부분 주변의 천 구조 상태를 투과 관찰하였는데, 손상부위 이외의 부분에서도 섬유가 손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, 약간의 힘만 가하여도 손쉽게 찢어지는 상태에 있었음. 현미경으로 섬유상태를 보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경사의 섬유가 특히 손상이 심하고, 섬유가 천 구조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부위도 있어 이는 마찰에 의한 손상이라 판단되었음.

- 옷깃의 후드 이음쇠와 접촉되는 부분에도 특징적인 손상을 볼 수 있어, 이 파손이 장기간에 걸쳐 마찰에 의해서 마모된 것이라 추정되었음. 특히, 양 소맷부리 주변, 옷깃 주위, 왼쪽 어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상적인 착용중에 큰 마찰력이 걸리는 부분이며, 왼쪽 어깨부위에 대해서는 솔더백 등이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.
- 이 사고는 소재에 대한 표시가 손상되었지만, 연소 감별시험으로부터 견섬유 소재임을 알 수 있었으며, 내마모성이 낮은 섬유소재임을 감안해 볼 때 내구성면에서 무리가 있는 제품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